

데스크사각

아폴론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채희중
여론매체부장

그리스신화에서 최고의 신은 제우스이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숭배한 신은 아폴론(Apollo)이었다. 그 이름은 ‘미남 청년’이란 뜻으로, 제우스 다음가는 자리의 태양신이자 음악·학문·예술·궁술·예언의 신이다. 아폴론은 문무를 겸비한 데다 아름다운 용모에 큰 키와 곱슬머리를 가진 그리스인들이 지향하는 ‘완벽한 이상(理想)’ 그 자체였다. 그러나 연애만큼은 낙오자였다.

그리스 신화의 골간은 신들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다. 그 결과물로 다양한 자손은 물론 도시 국가가 잉태되는 그리스의 기원을 상징하는 내용들로 채워진다. 세부적으로는 제우스의 바람피우기가 중심이고, 나머지 신들의 제우스 ‘따라 하기’가 주변 이야기다.

한데 유독 아폴론만은 실패한 연애담의 주인공으로 나온다. 이 얘기를 그리스 신화의 현대판 교과서라 할 수 있는 토마

스 불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와 국내 신화 서적들은 ‘아폴론의 슬픈 사랑’이나 ‘아폴론의 실연(失戀)’이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다. 아폴론이 가장 매력 있는 신인데도 결국 비련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뭘까? 신화의 아이러니는 분명 아폴론이 연애 초짜라는 표현적 이유 외에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신화나 고전의 가치가 끊임없이 후세에 영향을 끼치는 데 있듯이, 신화에 대한 해석은 시대에 따라 달라야 함이 마땅하다. 신화는 아폴론이 사랑에 실패한 이유를 신이라는 절대적 위치에서 여성을 차지하려 한 삐뚤어진 욕망과 그로 인한 폭력 때문임을 다양한 예를 들어 보여 주고 있다.

성폭력은 권력형 갑질이다

아폴론은 어느 날 강의 요정 ‘다프네’에게 찻눈에 반해, 사랑을 갈구하며 그녀를 쫓아다닌다. 공포에 질려 도망가던 다프네는 잡히기 직전, 아버지인 강의 신에게 빌어 월계수로 변신한다. 아폴론이 아랑곳하지 않고 월계수를 껌안고 입맞춤을 하자 다프네는 나무로 변했음에도 몸을 움츠린다. 아폴론에게 사랑이었는지 몰라도 다프네에게는 몸서리치는 성추행이었던 것이다.

결국 아폴론이 월계수 잎으로 만들어 ‘승리자에게 씌워 줄 월계관이 영원히 시들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자, 월계수는 고개를 끄덕이듯이 가지를 앞으로 구부리며 입을 흔들었다. 아폴론의 후회와 진정 어린 사과가 다프네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목이다.

다프네의 경우를 굳이 성폭력 사례로 분류한다면 스토킹에 해당하지만, ‘카산드라’와 ‘시빌레’의 경우는 선물을 미끼로 끊임없이 추구대는 성추행으로 볼 수 있다. 트로이의 공주인 카산드라에게 반한 아폴론은 예언술을 가르쳐 주는데 대신 그녀에게 사랑을 요구한다. 하지만 카산드라가 예언술을 배운 뒤에 사랑을 허락하지 않자, 화가 난 그는 한 번의 입맞춤으로 카산드라의 예언 능력 중 설득력을 없애 버린다. 이로써 트로이이 목마로 인해 조국인 트로이가 멸망하리란 것을 예언하는 카산드라의 말을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사랑(?)이 반아들어주지 않자 폭력 이상의 처절한 복수를 한 셈이다.

아폴론은 무너진 시빌레에게도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접근한다. 시빌레는 모래한 움큼을 집어 모래알(천 개)만큼 생일을 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그녀가 소원을 이룬 뒤, 자신에게 사랑을 허락하지 않자 아폴론은 1000년을 살도, 젊음은 유지되지 않도록 했다. 결국

시빌레는 늙고 추해지는 자기 모습에 죽기를 갈망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

아폴론은 유부녀인 아테네 공주 크레우사를 동굴로 끌고 가 성폭행한 적도 있었다. 달이 차서 출산이 다가오자 크레우사는 성폭행 현장인 동굴에서 아이를 낳은 뒤 버리고 만다.

미투운동 끝까지 가야 한다

사회의 모든 이슈를 뺏아들었던 미투(#MeToo) 운동이 이제 점차 수그러드는 것 같다. 성폭력은 어떤 유형이든 가장 치졸한 권력 남용이자 악랄한 ‘갑질’의 한 형태이다. 힘의 불균형과 권력(자위)의 상하 관계에서 가진 자가 빛내내는 범죄 행위인 것이다.

문화·예술계를 넘어 검찰과 정치권, 학계, 종교계 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진 성폭력을 보면, 이면에는 모두 권력형 갑질이 있었다. 특이한 것은 성폭력 가해자 모두 “잘못은 시인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는 힘의 우위에 선 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듯, 성폭력을 마치 그레드 되는 양 가버이 여기기 때문이다.

성폭력은 어떤 종류의 폭력보다도 처절하게 피해자를 괴롭히고, 나아가 파멸로 이끈다. 가정의 달에 수그러지는 ‘미투운동’을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이다.

/chaek@kwangju.co.kr

은편칼럼

상생(相生)의 지혜



김창균
광주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옛날에 가난한 바보가 욕심쟁이 부자와 이웃해 살고 있었다. 바보는 매일 돌맹이를 주워 마당에 쌓아 놓았는데, 부자가 지나 보니 맨 꼭대기에 금덩이가 놓여 있었다. 부자가 꾀를 내어 자기 집의 노작가리 돌머더기를 통로로 바꾸기로 약속하고선, 아까운 마음에 맨 꼭대기 한 단을 내려놓고 남겨주었다. 돌 더미를 받고 보니 금덩이가 보이지 않아 바보에게 물으니, 자기도 맨 뒷돌 하나를 뺐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부(富)’에 대한 선인들의 생각을 잘 보아주는 민담(民謠)이다. 부자는 큰 손해를 보고 바보는 잘 살게 되었다는 후일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연찮은 행운에 의해

부자가 되는 이야기는 구전되는致富(致富) 설화의 특성이지만, 한편으로 이 이야기는 눈치코치를 보며 약빠르게 행동하고 약자에 대한 갑질이 횡행하는 요즘 세상에 대한 알레고리(Allegory)로 다가온다. 작년에 공관병에 대한 육군 대장 사모님의 갑질이 회자되더니, 수년 전 땅콩 회항의 후속편으로 불벼락 갑질이 세간에 화제다. 오죽하면 외국에까지 소문나서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어 ‘갑질(gapjil)’에 대해 ‘중세시대 영주처럼 부하 직원이 나 하도급 업자에게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설명하였을까.

하지만 이것만일까.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에 대한 갑질도 예외가 아니다. 일부 병원 간호사의 ‘대음’ 문화도 직업에 대한 헌신적 책무 요구와 후배를 위한 교육적 지도로 포장된 갑질이며, ‘미투’ 운동도 상대적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육체·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문화를 고발한다는 점에서 갑질 문화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에 있다. 생활 주변에서도 아파트 경비실 안에서 설치 반대, 최저임금 상상을 밑미로 한 경비원 해고에 이어 아파트 단지 태백

차량 진입 금지가 최근 이슈화되었다.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한국의 모습은 빠른 인터넷, 당일 총알 배송, 기술 선도 기업, 감기도 치료해 주는 건강보험 등 빠른 속도와 대기업, 공공 서비스 비취진다고 한다. 올해 우리나라는 ‘30-50 클럽(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일곱 번째 멤버를 예약하며 선진국으로서의 외양을 거의 갖추었다. 그런데 사회·문화적 성숙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 여전히 이익 집단의 기득권 논리에 갇히고, 특권 의식 속에서 수신(修身)도 못하는 모리배들의 행동을 용인하는 사회는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물론 최근 들어 갑질 문화가 부각된 것은 이에 대한 반성적 노력이 수반되었기 때문이었다. 수면 아래에 있던 권력 불평등에 대한 자성적 목소리가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가해자인 갑을 용납하는 세상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소수의 용감한 목소리, 침묵을 깨뜨리는 용기 있는 촉발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특정인에 대한 일회성 비판을 넘어서서 나 자신부터 조직 권력에 기대어 관행이라는

피גע로 갑질을 용인하거나 저지르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겠다.

더불어 갑을 관계는 상대적이다. 우리네 범인(凡人)들에게 재벌은 범접하기 어려운 갑이지만, 촛불혁명으로 무너진 권력 앞에 비굴했던 재벌의 행태는 진부한 을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스스로를 을이라고 자위하는 우리 모습이 혹시 다른 누구에게 갑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봉건 질서 속에서 살아가던 선현들도 대학(大學)에 나오는 혈구지도(絜矩之道)를 강조하였으니, 자신의 잣대로 타인의 마음을 재고 나의 심정으로 타인의 처지를 헤아리라 하였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己所不欲勿施於人)는 뜻이다.

구례 운주로의 사랑재에서 안채로 들어가는 대문간에는 ‘타인능해(他人能解)’라는 글귀가 새겨진 큰 삼나무가 있다. ‘누구든 이 싹둑을 열 수 있다’는 뜻이니,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적선과 기부를 통해 이웃과 함께 하고자 했던 집주인의 모습을 민담 속의 부자와 대비해 본다.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나와 내가 같이 살자는 상생(相生)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패망의 길로 들어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 고

성격과 자존감



박일경
언어교정&심리치료 아카데미 대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나를 알아야 남을 알 수 있고, 내가 보여야 비로소 남이 보입니다. 이게 안 되어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고, 배우자와 같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서로 험투며 아프게 살고 있는 것이지요.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때면 낯설기조차 한 사람, 마치 내 안에 두 개의 내가 있는 것처럼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때로는 짐작할 수 없기도 한,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리고 그 안에서 느꼈던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의 나를 이루고 있다면, 그 ‘나’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격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성격에 만족하시나

요? 사람은 이 ‘성격’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아서 한 결혼이 바로 이 ‘성격 차이’ 때문에 끝날 때까지 한다는 것을 보면 분명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상황이 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이 성격 때문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불행해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십시오. 성격은 자존감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자존감은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나는 내놓을 게 없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값어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따라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버립니다. 그러나 조그만 일에도 쉽게 무너지고 상처를 받는 것이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낮은 사람은 자기의 외모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지요.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치심을 에너지 레벨이 낮은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늘 힘이 없고 활력도, 자신감도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은 외모에 가장 민감해지는 사춘기에 한층 외모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자신의 코가, 눈이, 그리고 피부색이, 키가, 몸무게가 대한민국 표준치와 거리가 멀어 비판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낮은 자존감의 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너 그만하면 예쁘다. 그만하면 잘 생겼다’고 아무리 말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낮은 자존감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청소년에게 ‘외모, 외모 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공부나 하라’던가, ‘그냥 생긴 대로 살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말이지요.

낮은 자존감의 원인을 살펴주는 게 해결책입니다. 이런 청소년 역시 성장 과정, 즉 어린 시절에 그 문제의 근원이 있거나, 현재의 가정 환경에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상당수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다툼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떨어뜨립니다. 심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불안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맙니다. 부모란, 그래서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가장 힘든 배역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기를 써서라도, 그리고 내키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부부 사이가 화목해야 하니 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존심이 강하고, 열등감이 큼니다. 만약 여러 가지가 멀어 비판에 빠져 있다면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즉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성격이 때에 이 능력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탓에 자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의 고정관념 안에서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따라서 대인 관계에 불편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감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평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그리고 행복한 자신감에 넘쳐 살려면 이 자존감이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의 높고 낮음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 즉 어떤 부모로부터 어떻게 성장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인식을 일깨워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社說

38년 유보된 5월 영령들의 한(恨) 올해엔 꼭..

5월이 문을 열었다. 벌써 38번째 맞는 5월이다. 1980년 5월의 함성이 아직도 들리는 듯한데 그때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을 학살한 발포 명령자는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5월 단체들은 올해를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10년 가까운 보수 정권이 막을 내리고 문재인 정부가 맞을 올린 사실상 첫 해이기 때문이다. 5·18 진상 규명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헬기 사격’ 진상 규명과 5·18 정신 헌법 명기도 공언했다.

문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9월 5·18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발족했다. 특조위는 지난 2월 계엄군이 헬기에서 시민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

인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적인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 설치가 핵심이다.

최근엔 조사위 구성 작업이 본격적 수됐다.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조사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1명,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으로 구성된다.

조사위는 오는 9월 출범할 예정이다. 조사위 실무 지원 팀도 광주에 설치된다. 광주시 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지원팀은 현장조사, 기록발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사무실은 5·18기념재단 등이 자리한 5·18기념문화센터,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옛 전남도청 별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역 5월단체 관계자들은 “진상 규명 특별법이 만들어진 만큼 올해가 진상 규명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말로 발포 명령자와 임태장 등 5·18의 완전한 진상이 규명돼, 38년간 유보된 5월 영령들의 한(恨)이 풀리기를 모든 국민과 함께 염원한다.

연 방문객 5천만 명 돌파 ‘관광 전남’ 동력으로

지난해 전남도를 찾은 관광객이 사상 최초로 5000만 명을 넘어서 경기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여수시는 1500만 명 이상이 방문해 에버랜드가 있는 경기도 용인시를 제치고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우뚝 섰다. ‘관광 전남’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7 전국 주요 관광 지점 입장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남에는 지난해 5079만 명이 다녀가, 경기도(7643만 명)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의 4279만 명보다 80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시·군별로는 1508만 명을 돌파 모은 여수시가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순천시 907만 명, 담양군 279만 명, 목포시 259만 명, 구례군 249만 명 등이었다. 관광지별로는 순천만국가정원

(612만 명), 여수엑스포 해양공원(357만 명), 여수 오동도(315만 명), 여수 돌산공원(266만 명), 담양 죽녹원(139만 명) 등이 인기를 끌었다.

관광객 급증에는 무엇보다 KTX와 수서발 SRT 등 교통 여건 개선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것은 지난해 전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9만 4000명으로 전국(1333만 명)의 1.5%에 그친 점이다.

전남은 천혜의 자연 환경과 풍부한 전통 문화유산을 자랑하지만 관광 기반은 미약하기만 했다. 연간 관광객 5000만 명 돌파를 계기로 관광 개발과 홍보 전략을 재검토했다. 지속 가능한 ‘관광 전남’의 새 틀을 짜야 한다. 무안공항 활성화와 흑산도 소형 공항 개항, 크루즈 여행 확대 등 인프라 보강도 필요하다. 관광지별로는 순천만국가정원

無 等 鼓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은 형제는 서로 만나 웃음 한 번으로 지난 원한을 없앨 수 있다.” 중국 근대 문학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루쉰(魯迅)의 시구다. 지난해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은 마치 루쉰의 시구를 연상케 했다.

서로 손을 맞잡고 높이 5cm 정도의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남북으로 넘나드는 모습에 지구촌이 흥분과 감동에 빠졌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한반도에 불어닥쳤던 전쟁 위기를 두 사람이 눈 녹듯이 풀어내는 모습을 보면 서서 한 번 남북이

한반도 평화 대현장

해 호평을 하고 있는 데도, 유독 혹평을 하며 국회 비준 동의에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형제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4·27 판문점 선언은 앞선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선언과 달리 진일 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65년간 한반도를 짓눌러 왔던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큰 성과다. 하지만 문제는 이 행이다. 앞선 2000년 6·15 선언과 2007년 10·4 남북 공동선언의 합의 내용은 이후 남측에 보수정권이 등장하고 북측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사실상 ‘중이 조각’이 됐다.

이 때문에 국회 비준(批准) 동기가 반

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남북 위장 평화 소’라며 헐뜯고,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부정적이다. 전 세계 국가와 언론 등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호평을 하고 있는 데도, 유독 혹평을 하며 국회 비준 동의에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형제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4·27 판문점 선언은 앞선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선언과 달리 진일 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65년간 한반도를 짓눌러 왔던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큰 성과다. 하지만 문제는 이 행이다. 앞선 2000년 6·15 선언과 2007년 10·4 남북 공동선언의 합의 내용은 이후 남측에 보수정권이 등장하고 북측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사실상 ‘중이 조각’이 됐다.

이 때문에 국회 비준(批准) 동기가 반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 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